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캐나다,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 금지

□ 캐나다 재무부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, 이에 대해 은행산업은 즉각 반발함.

- 캐나다는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 은행지점을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을 제한하는 등 은행영업과 보험영업이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을 금지해왔고 이러한 정책이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에도 영향을 미침.
- 최근 캐나다 대형은행들은 보험사업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, 몬트리올 은행(Bank of Montreal)은 지난해 캐나다 AIG보험을 인수한 바 있음.
- 또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은행들이 점차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은행산업은 당혹스러워함.
- 캐나다의 대형은행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, 소비자의 금융상품 정보접근을 어렵게 하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즉각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냄.

□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보험사업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은행을 견제하려는 보험중개사들의 로비를 통해 이루어짐.

- 5년마다 개정이 이루어지는 캐나다의 은행법은 지난 2006년에 마지막 개정이 있었으며, 이때 은행산업은 은행지점을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 규제를 없애기 위해 로비를 벌였으나 실패함.
- 그 후 은행들은 규제를 피해 은행지점 바로 옆에 보험사무소를 개설하고 같은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하는 보험영업을 해왔으며 이러한 전략은 보험중개사들의 반발을 샀.
- 이에 보험중개사들은 은행의 홈페이지도 지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상품 마케팅을 금지하도록 정치권을 설득하였고 결국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임.

(Globe and Mail, 10/8)